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KR1112

한글 성명: 김소정

삶의 '공간' 채우기

우리의 공간은 무한하다. 하지만 우리 삶의 공간은 유한하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제한된 공간에서 살고 있다. 우리 삶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공간 채우기'는 사감이 살아가면서 평생 고민하고 수행할 과제이다.

고등학교까지 나의 삶의 공간은 공부에만 채웠다. 그때의 나는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으로서 나의 과제는 딱 하나였다. 바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교실"과 "침"이라는 두 공간에서만 살았다. 특히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나의 삶의 공간은 여지없이 껍껍 채웠다. 이런 생활은 10여년간 지속했다.

한국으로 유학오면서 나의 삶의 공간은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나의 공간 속에 공부와 책만 존재하지 않게 됐다. 내가 한국으로 유학오게 된 이유중에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KR 1112

한글 성명:

김소정

하나가 바로 삶의 공간분 바꾸고 싶은
것이다. 급방 입학했을 때, 나는 습관적
으로 도서관에서만 여윌 시간분 보냈다.
그런 모습을 본 교수님은 나에게 이렇
게 말했다: "대학이라는 곳은 공부만 하
는 곳이 아니다. 책에서만 살지 말고 더
넓은 세상에 가 보렴." 나는 그때 나의
삶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은 한국 곳곳 여행가고, 밴드 등
아리에서 공연도 하고, 일삼 생활을 유
튜브 찍어 올리기도 한다. 그들의 삶의
공간분 친구, 연애, 취미, 꿈 등 다양한
것들이 채워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삶의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는 결국 정
의가 없다. 내가 중요시 하는 것, 나의
삶에 제일 얻고 싶은 채우면 된다.
그 후부터, 나의 삶의 공간분 풍부해졌
다. 어릴 때 부터 좋아했던 미술을 다시
하게 되었다. 학교 미술 동아리에 가입하
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면서 끝이 그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KR 1112

한글 성명: 김소정

림도 그리고, 미술 전시회도 보러 간다.
 내 공간은 더 이상 홀로 있는 게 아니
 라, 다른 사감들과 공간을 공유하게 된
 다. 나는 자취가 아닌 기숙사를 선택했
 다. 가족이 아닌 볼록는 사감과 같은
 공간물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고 참신했
 다. 그러므로 나의 룸메이트는 한 국인.
 일본인, 미국인, 터키인, 중국인들이었다.
 다양한 문화권 사감들의 이야기를 들으
 면서, 그들의 삶에 공간물이 알게 되었다.
 부산의 바다, 오사카의 벚꽃, 캘리포니아
 의 햇살, 터키의 바비큐, 북경의 맛집.
 나는 더 이상 나만에 공간에서 있지 않
 고, 다른 사감의 공간에 구경도 하도,
 그들물 나의 공간에 초대도 한다. 나는
 "나눔"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삶의 공간에 무엇물
 채워지 고민하고 있다. 삶의 공간에 많
 이 채울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우는 지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KR112

한글 성명: 김소정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채우고 싶은 욕망에 잠겼다. 그
래서 종종 바쁨이 힘들 때 있다. 하지만
최근에 미술 전시회에서 산수화^{풍경화}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백지에 물감이 과하면
오히려 지저분하고 주제를 파악하기 어
렵다. 산수화에서 하늘, 강물, 바다 같은
공간을 여백으로 대체한다. 유한한 백지
에 무한한 공간을 표현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엇을 진정하게 원하는지, 무엇을 포기
해야 하는지, 유한한 공간에는 선택이 필
요하다. 중국 유명 한 유학자 맹자도 역
역시 물고기와 곰 발바닥은 동식에 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얻는 것이 있으
면 포기하는 것도 있고, 포기해야 얻는
것도 있다.

미래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 할까?
내년 졸업 예정인 나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아직 나는 꿈과 미래에

제 3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KR1112

한글 성명: 김소정

대한 기대와 설렘에 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나는 과거의 나처럼 공부와 책만 읽는 삶에 살기 싫다는 것이다. 나의 미래에는 미래의 가족들과 함께, 친구 동료들과 함께, 취미 생활과 함께 살고 싶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나의 공간에서는 더 많은 웃음소리, 응원소리가 들리고 싶다.

삶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나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답을 못 찾았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과정 자체가 인생이지 않을까?